

특별기고



김주웅
광주지방보훈청장

호국 보훈의 달과 불멸의 광주 정신

지는 안보 상황에 따라 신라의 화랑도 정신, 고구려의 상무 정신, 고려의 저항 정신, 조선의 의병 정신, 일제 시대의 독립 정신, 6·25 전쟁 시의 반공 정신 등 '호국 정신'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 왔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애국지사들과 호국 영웅들이 어떻게 나라를 찾고 지켰는지를 배우고, 그 정신을 본받아 이 시대의 국가 안보 상황에 대비하는 호국 정신을 가져야 한다.

특히 광주는 한말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 의병 전쟁을 치렀던 '호남 의병'과 3·1운동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항일 운동이었던 학생 독립 운동의 시작이 된 '광주 학생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낸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민주·인권의 상징이 된 도시이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자 참전했던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전국적으로 광복을 이루어 낸 '독립 정신', 6·25 전쟁을 이겨낸 '호국 정신',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 정신'이 함께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드

물다. 이순신 장군도 '약무호남 사무국가'라고 하셨듯이 예로부터 이곳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두가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던 꺼지지 않는 광주만의 애국정신이 있다.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6월의 전쟁 영웅 임부택 육군 소장은 1919년 나주에서 출생하여 1946년 5월 국방경비사관학교 창설과 함께 육군 참위로 임관하여 6·25 전투에서 탁월한 지휘력과 용맹함으로 춘천-홍천 지구에서 고지를 누벼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받은 6·25전쟁 영웅이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 국방부 인사국장, 육군본부 병참감, 제1군단장 등을 역임한 임부택 장군은 6·25 전쟁 3년의 기간 중 육군보병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3개월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을 연대장, 부사단장, 사단장으로 전장을 누빈 몇 안 되는 장군이었다. 이처럼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광주의, 광주만의 불멸의 정신을 발굴하여 재조명하고 이러한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6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고 있다. 후자는 미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국가 유공자의 예우 증진은 멀리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 직결되며, 가까이는 국가 안보 그 자체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고, 민족의 번영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존재와 번영은 국민을 극복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꿋꿋한 나이에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다. 국가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온 국민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교훈으로 삼아 국민통합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

은폐칼럼



심명섭
행정학박사·대한문화작가회 회장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하다

어떨까? 아마 그들은 지금 본인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때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삶의 질을 생각하는 연령이 낮아졌다.

그러면 사회 진출의 입구에 서있는 요즘 대학생들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을까? 현재 대학가에 가서 값어치 있는 삶의 질을 위해 가져야 할 직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안정성' 혹은 '여가 시간의 보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보장하는 직업으로 공무원 혹은 공기업 등을 언급한다. 청년 취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선발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너도나도 몰입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땅히 들어갈 직장이 없다. 앞서 언급했던 점들에 대한 기대가 커서 웬만한 직장은 가서 오래 못 버티고, 점점 청년 실업률은 높아져만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군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힐링을 중요시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요구가 급속도

로 늘어나는가. 모든 시스템이 서열화되어 개인주의적인 면이 높아지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그 삭막하고 정 없는 공간 속에서 여유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더하여 점차 그들의 갈등이 쌓이고 쌓여 하나 둘씩 곳곳에서 터졌다. 이것이 사회 문제로 발현한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 문제와 사회 통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한국 사회의 각종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 갈등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노동자와 경영자의 갈등, 부자와 빈자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고령자와 젊은이의 갈등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의 예를 보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장 근로자의 경우 똑같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연 2천만~3천만 원을 받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2~3배를 받는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급여가 낮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 가는 데 무슨 근로 의욕이 생겨나겠느냐는 것이다.

직종 간 차이를 타파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일단 처음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직종이 나뉜다. 여기서 각 직종마다 급여 차이가 크게 나고, 이러한 점으로 사람들을 서열화시켜 평가해 버린다. 차갑고 냉정하다. 앞서 말한 모습을 보면 왜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직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간다.

우리나라가 급속히 민주화가 되면서 촘촘하게 손을 못 본 분야가 바로 노동 분야다. 갑자기 민주화가 되다 보니 사방팔방에서 요구 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목소리 큰 분야부터 해결했는데 노동 분야는 미처 손보지 못했다. 그때 버스는 이미 출발해 버렸다. 떠나버린 버스를 쫓아가서 지금 승차하려고 하니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다. 기득권이 있는데 기득권을 손보려 하면 그 기득권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 어떤 전공자가 나와서 하든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서 하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 모두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고



이세천
전 광주학생해방수련원장

교육 개혁의 시점에서

모두들 격정스러워 한다. 적절한 시기에 많은 것을 알기하고 문제 풀이를 통해 정라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시기에 알맞은 지적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활용 능력도 향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기와 문제 풀이 만으로는 깊이 있게 사색하고 주위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힘들다.

우리 교육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암기 위주의 교육에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입시이다. 대학 입시는 변별력과 공정성, 곧 미세한 실력의 차이를 변별하고 객관화해 그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변화해 왔다. 거기에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다 보니, 현재 수능 중심의 입시 체제가 형성됐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학 입시를 대학 평가가 아닌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은 고교의 평가를 존중하고 밝힌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더불어 수능을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수능과 내신 절대 평가는 대학 입시를 위한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능의 경

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지체 없이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입시 제도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짚어볼 문제는 역시 수능 중심의 입시 체계다.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또한 암기와 단순한 문제 풀이 중심의 교육 탈피를 위해 과감하게는 서술형 시험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영어와 수학의 비중을 축소하고 인문·사회·자연·예술 교육을 활성화해 사고를 확장하고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론과 실습 위주의 학습이 확대되면 효과가 커질 것이다.

대학 입시에는 많은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보는 입장에 따라 중심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입시 개혁의 핵심적 목표는 교육의 정상화에 뒤야 한다.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치우치지 않고 배움과 성장이 가능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남북 정상 회담으로 감격스럽게 열린 희망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하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학교를 그려본다.

社說

선거 막판 '묻지마 폭로전'으로 치달아서야

지방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선거 분위기가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등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미투'(Me Too) 관련 '묻지 마 폭로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기초단체장 유력 후보들은 근거 없는 '미투' 폭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유두석 장성 군수 후보는 그제 "악의적인 '미투 조작' 음모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후보 측은 "지역 한 주간지가 지난해 장성 군수 재직 당시 유 후보가 주민자치위원 모임에 참석해 여성에게 귓속말로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모임은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공개적인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은 100%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소속 이승만 보성 군수 후보도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술 취한 여성과 2시간

동안 뒹 뒹'라는 '미투 기사'에 대해 "유력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기사"라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하 후보 측은 "기사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 없이 추상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져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막바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이들 사례는 사실 관계가 모호해 논란을 부르고 있지만 단시일 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아 후보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선거 운동이 혼탁해지면서 선거법 위반도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20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는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흠집 내기식 네거티브 폭로전은 안 된다. 특히 표만을 노린 허위 사실 유포는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5·18 당시 성범죄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광주와 전남 지역 여성 단체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범죄 피해 사례를 모으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오월민주여성회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및 5·18기립재단 등과 함께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5·18 성폭력과 고문 수사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18 여성 성폭력 문제는 일제 강점기에 있어 성노예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주 4·3항쟁에서의 여성 폭력과 피해 등 그 본질에 있어 같은 맥락에 닿아 있다"며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5·18 유공자로 보상받은 여성이 고작 258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역사에 가려졌거나 2·3차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숨은 여성이 많다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성범죄 실상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여성 단체

역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5·18 당시 여성들은 계엄군 만행을 알리는 거리 방송에 나섰다. 현행과 주먹밥 나눔, 희생자 시신 수습, 추모 리본 만들기 등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 투쟁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의 활동은 크게 조명받지 못했으며 피해 사실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오월민주여성회 등 광주 지역 5·18 관련 단체들은 이날 5·18 당시 자행된 고문 수사와 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기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는 5·18 여성 생존자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여성 단체가 주장한 대로 당시 계엄군의 여성 성폭행 범죄와 고문 수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별전담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모르 파티'(Amor Fati)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스페인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즐거움 학문'에서 처음 사용해 유명해졌다.

니체는 "운명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으로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운명의 필연성을 긍정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사랑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운명

아모르 파티

를 수용해 자신의 삶에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는 일명 '초인'이 되는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아모르 파티는 니체 철학의 요체로 세상에 대한 긍정을 통해 반복되는 삶에서 오는 허무를 극복한다는 '디오니스소스적 긍정' 정신을 담고 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 철학을 알기 쉽게 노래한 김연자의 동명 트로트 가요가 인기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또 내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만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

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여러 철학적인 개념을 가슴에 와 닿는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 인기 비결이다. 트로트지만 전자음으로 댄스를 가미해 젊은 층에게도 인기다. 지난주 부산대 축제에서 이 노래가 반전을 일으켜 화제를 모았다. 대학 축제는 통상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부산대 총학생회가 김연자를 초청하자 처음에는 불만 섞인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김연자가 화려한 의상으로 흥겨운 무대를 꾸미자 학생들이 '때창'으로 화

답할 정도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것이다.

아모르 파티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송'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민주당이 17개의 선거송 가운데 가장 비싼 저작권료를 지불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한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은 요즘, 대중들은 '아모르 파티'란 대중가요에서 삶의 희망과 활력을 찾고 있다. 때로는 대중가요가 철학을 넘어설 때도 있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